

구원의 축복

롬 11:33~36

하나님의 고통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장면에 이르러 그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가 서술해 왔던 모든 논리를 멈춘 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가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교리를 초월합니다.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모습을 33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감격을 감춘 채 구원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 구원의 딜레마 앞에 서서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이윽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만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깊습니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관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비참한가?”, “하나님에게 정의가 있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며 부조리한가?”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논밭을 다 팔고, 먹을 것을 줄이고, 험한 음식을 먹고,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라고 말한다면 이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1장의 마지막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구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언급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 받을만한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지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 동시에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 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자신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실패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선언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개인이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구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을 돌이켜보니к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때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가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이 좋고, 크고, 놀라울수록 그 절망은 상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잘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배 불러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북쪽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물론 그들은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혈육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전 인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갈등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갈등이 됩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꼭 한사람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찾느라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터키에 갔을 때, 이 훈목사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탄 줄 알고 떠났는데 이 훈목사가 미처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부터 버스에 탄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돌려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정도 없어졌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전 공동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희생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했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저주,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고약스럽게 믿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나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는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쓰셨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이방인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2천년 동안 유대인의 대학살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학살을 당하고,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 잡아야 1백년이 채 안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천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도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는 고난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당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

다음으로 나오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와 욥기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구원받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단지 기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무신론자들, 그런 회의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합리성을 앞세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돼지를 잡아 절을 합니다. 왜 그런 우상은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번째 그룹은 극단적으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았지, 비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좁은 지식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참 생명을 다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35장 7절과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3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헌금이나 봉사 한번하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으스스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헌신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내 스스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내 돈을 내 시간을 받으시다니요!”, “내 헌신을 받으시다니요! 주님, 주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격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결론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인간의 어리석음에 반문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론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전치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에게서(from)”입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둘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through)”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주에게로(to)” 돌아갑니다. 결론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달걀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요,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요,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을 외칩니다. 36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은 내가 측량할 수 없으며, 당신의 구원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신의 구원은 그 사랑은 그 오묘한 섭리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헌신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이토록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이렇게 넓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일주일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